



고질적 민원 해수욕장 ‘파라솔’ 갈등

피서객 “내가 가져온 것, 왜 못 치게 하나” 분통
마을 자생단체 “돈 내고 대여 파라솔 사용하라”
설치 놓고 잦은 마찰… 제주시 “행정조치 실시”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제주도내 해수욕장마다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를 놓고 마찰이 잇따라 발생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모씨는 지난 12~14일 가족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얼굴을 붉히는 일을 겪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파라솔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마을 자생단체 관계자가 “이 곳에 설치하면 안된다. 돈을 내고 우리가 대여하는 파라솔을 사용하라”며 개인 파라솔 설치를 막았기 때문이다. 할수 없이 김씨는 대여비 1만5000원을 내고 해수욕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

었지만, 이후에도 ‘개인 파라솔 설치’ 문제로 실랑이 하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돼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김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제주도로 휴가를 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적당한 요구는 괜찮지만 막무가내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쾌감만 들게 만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 대부분은 마을 자생단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이 지정하는 일정 구역에서 파라솔이나 돛자리 등을 대여해주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허가를 받은 마을 자생단체에서 개인 파라솔 등 시설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을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과도하게 제한에 나서면서 피서객들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 파라솔을 가져온 피서객에게는 지정된 구역 밖에 설치를 부탁하고 있다”며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잦은 민원 발생 시 행정 조치를 가한다’는 조건을 다는 한편 마을 자생단체에도 이 용객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사건 왼쪽부터 김소연·홍기훈·황보연 경위

자랑스러운 제주경찰 3명 선발·포상

김소연·홍기훈·황보연 경위
교통사망사고 예방 등 공로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 김소연 경위와 제주본부경찰서 중앙지구대 홍기훈 경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황보연 경위를 ‘자랑스러운 제주경찰’로 선발·포상했다. 김소연 경위는 올해 제주경찰 최대 현안인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해요 제주!’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익광고를 제작해 홍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홍기훈 경위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중학교 앞에서 의식을 잃고 인도에

돌진한 차량 운전자를 신속히 구조해 인명피해를 막았으며 지난 5월에는 여성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황보연 경위는 지난 5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수사부서, 지역경찰 등 총 148명을 대상으로 KICS(형사사범 정보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하고 그동안 쌓아온 수사 비법을 전달하는 등 경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상정 제주경찰청장은 “도민 안전을 지키고 경찰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자랑스롭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안전한 삶을 지키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보조금 사기업체 상대
道, 교부금 회수 ‘패소’
재판부 “범위 벗어난
사용 단정짓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어업회사법인 A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교부금 반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4년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사업’에 선정돼 2014년 3월 보조금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 A사는 이듬해 추가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1억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A사 대표가 2016년 3월 보조금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제주도는 후속 보조금 지급 절차를 중단했고, 같은해 6월에는 A사에 보조금 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A사 대표는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드러나 2017년 1월 법원으로 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 이후 A사는 제주도의 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 처분이 잇따르자 정당한 지급 요건을 갖춘 교부금까지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보조금 범위에 벗어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주도는 2014년 지방보조금 2774만원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와 2015년 지방보조금 1억원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2016년 지방보조금 교부 중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송은범기자



어르신들 찜통 여름 나는 비법… 모래 찜질! 제주시이 찜통더위로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16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검은모래 찜질을 하며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 제주경찰 잇따른 외국인 강력사건 발생후... 올 상반기 출입국사범 214명 검거

불법체류자도 373명 적발

최근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00명 이상의 출입국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사·형사·생활안전 등 경찰 각 기능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외국인 강력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활동’과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등을 통해 모두 214명의 출입국사범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과 5월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외국인 강력사건 특별활동’에서는 불법체류자 84명 등 총 91명이 검거됐으며,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된 정부합동 단속에서는 83명이 검거됐다. 이 밖에 도 경찰의 상시 단속을 통해서도 상당수의 불법체류자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불법체류자 적발 인원도 전년 동기 대비 41.8%(263명→373명)나 증가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기간 국제범죄사범 38명을 체포해 이중 2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도와 이탈·알선시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위조·사용 9명, 폭력 7명, 불법 취업 알선 3명, 기타사범 7명이다. 김항년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하반기에도 불법취업 및 무단이탈 등 국제범죄와 더불어 외국인 폭력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또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도 더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동거녀 11세 딸 추행한 40대 징역 4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6)씨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 12일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녀의 딸 A(당시 11세)양을 보고 옷을 벗은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9월 잠이 든 A양의

옷을 건어 특정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해 10월 21일에는 A양의 어머니 B씨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도 받지 않자 B씨의 차량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송은범기자

주행중이던 차에서 화재

15일 오후 9시45분 서귀포시 하에동 대동고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일부가 불에 타면서 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흥준기자 chi@ihalla.com

무허가 스킨다이버링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에서 스킨다이버링을 하던 우모(39·부산)씨과 김모(38·부산)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오후 6시 30분쯤 어획물을 잡기 위해 스킨장비와 작살을 착용하고 입수해 다이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레저 허가구역으로 고시된 곳에서 레저활동을 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흥준기자

서귀포시정 소식

자귀주도학습지원센터 7월 부모토강
○ 일 시 : 2018. 7. 20(금) 10:00~12:00
○ 장 소 : 서귀포시정 1층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
○ 대 상 : 관내 부모 200명
○ 강 사 : 문미경 ((사)창업인재경영협회장)
○ 주 제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4차 인재 육성
○ 참여방법 : 당일 선착순 입장
○ 수강료 : 무료
○ 문 의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760-3962

‘결혼해도 괜찮아! 브런치 토크 콘서트’ 참가자 모집 일력
○ 신청기간 : 2018. 7. 11(수) ~ 7. 24(화)
○ 신청대상 및 인원 : 미혼 남·녀 및 육아에 지친 시민 누구나 100명
○ 행사일시 : 2018. 8. 4(토) 11:00~14:00
○ 행사장소 : 파크선사인 제주
○ 행사내용 : 브런치 토크 콘서트(간단한 샌드위치 및 음료 제공)
- 여성학자 『박혜란(가수 이적임)』 초청 특강
- 『홍창욱』 작가의 아빠 육아 사례 발표
○ 참 가 비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신청 및 문의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760-2522, 2524, 2526

7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일력
○ 운영일정 : 2018. 7. 24(화) 9:40~12:00
○ 운영대상 : 임신부, 가임기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원하는 대상자 등
○ 운영장소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운영내용
- 임신부의 건강체크 및 상담
- 임신 주수에 맞는 검사 : 입체 초음파검사, 혈액검사(풍진검사 포함) 등
* 임신성 당뇨병사 가능(검사 전별 저녁 이후 금식)
- 자궁경부암 검사
○ 신청방법 : 전화예약(사전예약제)
○ 신청 및 문의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760-6274, 6276, 6272

주간농업농촌소식

2018 제주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전망 발표 및 현장 토론회

제주 주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 유도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8 제주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전망 발표 및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정 안 내 -

□ 일 시 : 2018. 7. 20.(금) 14:00-17:30
□ 장 소 :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제주시 선덕로 23)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 내용

- 양념채소류 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류 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 월동채소류 판매시장 동향 (한국농과주식회사)
- 월동채소류 재배 여건 변화 및 연구 방향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제주지역 채소의 수급 안정화 방향 및 정책 (제주도청 식품원예특작과)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760-7224)

(주)제주시스템비계

(주)한진철거

시스템비계 (클린사업) 등록업체
[소규모현장 시스템비계설치시 정부지원]

시스템비계 임대(판매)
안전 발판 임대(판매)

정확한 설계
안전시공

비계 공사 전문건설업
철거 공사 전문건설업
석면 해체, 제거업

관련문의
722-0407, 724-1420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